

연 수 일 지

연 수 방 과 후	연수방과후	사이좋은방과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 2층	
	전화번호	031-292-5925	
	지도교사	파랑(이정환)	
	연수기간	2016년 11월 7일 - 2016년 11월 11일 (5일)	

연 수 생	소속방과후	봉제산 방과후		
	소속방과후 담당(1-2학년)	교사		
	이 름	박예은	손전화	010-3020-5449
	별 명	구름	전자우편 (메일주소)	pingu0126@naver.com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목 차

I. 연수에 들어가며

II. 연수일지

1. 방과후 연혁
2. 방 구성 및 교사 현황
3. 실내외 배치도
4. 연간교육계획안(년간, 월간, 주간 계획)
5. 연수일지
6. 총평(지도교사가 적습니다)

I. 연수에 들어가며

공동육아 방과후 연수는 공동육아방과후 현장학교 수강자와 연수교사의 현장실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현장 경험을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기회입니다. 현장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론을 교육현장에 실천하여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연수교사 주의사항

연수교사는 배우는 자로서의 예의와 책임을 다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출근을 하면 연수생 출근부에 날인을 한다.
- 방과후의 교육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 복장은 편하고 나들이 활동에 적합한 차림으로 한다.
- 참관이 없는 시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연수일지를 성의 있게 기록한다.
- 공적인 서류나 자료를 참고할 때에는 담당교사의 사전 승인을 얻으며, 참고 후에는 바로 반환하고 외부로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연수를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

- 1) 요일별로 정해진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교사들이 준비하는 과정과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참여하는 아이들의 태도) 보고 싶습니다.
- 2) 봉제산 방과후는 평어를 사용하는데, 연수터전인 사이좋은 방과후는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대할 때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습니다.

● 연수 방과후 및 지도교사에게 바라는 점 :

특별한 모습이 아닌, 터전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II. 연수일지

1. 방과후 연혁

- 2001년 : 공동육아준비모임(2000)
 ⇨공동육아어린이집 '사이좋은 어린이집' 설립
- 2002년 : 사이좋은 어린이집내 초등방과후'모두모두방과후'설립 (재정,공간통합)
- 2004년 : '사이좋은 방과후 조합 결성' (재정, 공간독립)
- 2005년 :사이좋은 방과후 중 일부 독립
 ⇨초등대안학교 '칠보산 자유학교'설립
- 2005년 : 서수원 교육문화 공동체 법인 등록
- 2006년 : 터전 이전(LG빌리지 402동 102호)
- 2008년 : 사이좋은 방과후 졸업생 모임 '사이좋은 명예방 결성'
- 2009년 : 쇠터전 설치(컨테이너) ⇨2011년 철거
- 2013년 : 터전이전(LG빌리지 408동 104호)
- 2014년 :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 사이좋은 방과후 동문회 발족
- 2016년 : 터전이전(금곡로 23번길 2층)
 2016년 현재 : **19가구 22명 등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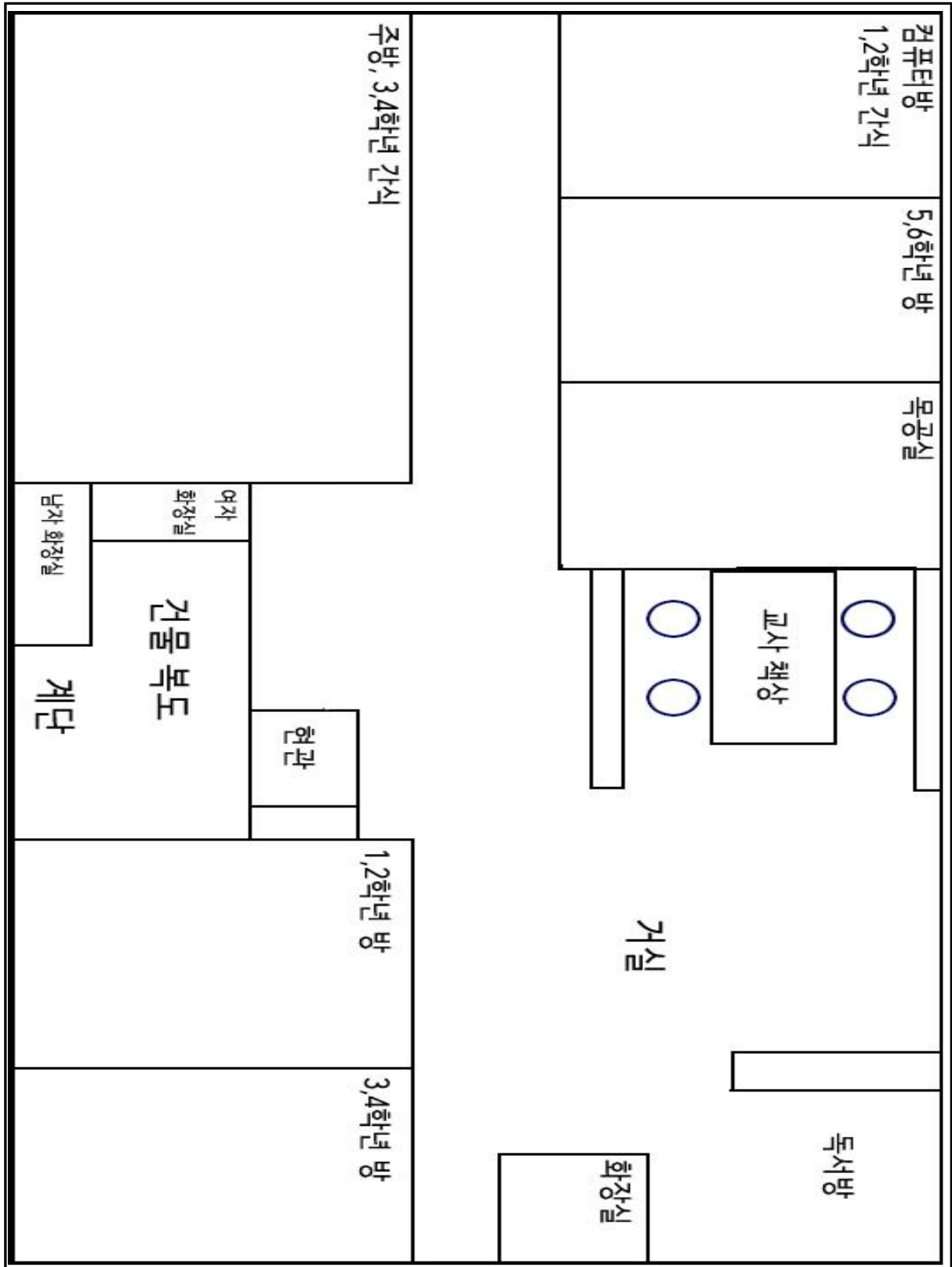
2. 방 구성 및 교사 현황

학년	이름	별명	역할	아동수	아동연령
1-2학년	김주희	숲속	교사	9	8,9세
3-4학년	안혜진	소리	교사	11	10,11세
5-6학년	이정환	파랑	교사	2	12,13세

3. 실내외 배치도

(* 방과후 전체에 대한 실내외 배치도, 실내 환경 구성 및 배치도입니다.)

1) 실내외 배치도



4. 연간교육계획안(년간, 월간, 주간 계획)

1) 연간·월간 교육계획안

①2016년도 교육활동 계획

	학년활동	전체활동	기타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교육(3,4학년) -4월~6월:월1회 (*쇠비름 지도) •수공예(5월~7월총20차시) 1학년-대바늘 '무지개공' 2학년-대바늘 '동물인형' 3학년-코바늘 '리코더집' 4학년-십자수 '시계' 5,6학년-바느질'동물인형' •자전거여행(4~6학년 8월) -안양천~아라뱃길 정서진 왕복(총연장135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마다>(*하반기공통) •옛이야기듣기(그림형제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6월 둘째주금요일 호매실고(지도교사풀잎) 동아리터전방문 *3~6학년 캠핑계획을 터전살이로 변경함. >>캠핑계획무기한보류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 마다>(*하반기공통) •어린이전체회의 •노래배우기 •스스로간식 •놀이마당 •시장놀이(격월) •탄생화(나무) 찾기 (*한 달 동안)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활동(4월~7월) (빵만들기,외발자전거 -주1회>> 월1회)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활동(6월) -자전거안전교육 -자전거면허시험 -자전거나들이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주간(6월) •터전살이(6월) -1,2학년 / 3~6학년(화성나들이)으로 나누어 진행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들살이(8월무의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교육(3,4학년) (9월~11월; 월1회 총3차시) (*생태교육관장 쇠비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장터준비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리 동아리 (기존의 빵 만들기 동아리가 요리/ 간식동아리로 변경운영- 활동 월1회 -담당 숲속) *별빛산행 (10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성장활동 (10월~12월;주1회총1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나들이 (9월 마지막 주- 자전거 익히기, 면허시험, 10월- 나들이, 주 1회 총 4차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학년- 젓은 그림(숲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활동 (10월~12월; 주1회이상) 나들이/기타연주/목공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학년-신화,리코더(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탄축제주간(12월19~23일)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학년-그림책세미나(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들살이(1/11.수~13금, 연천선사유적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학년-주제 활동(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식/진급식/신입환영식 (2월) 			
3월					

<2016년 주요일정>

- 3월 12일(토) : 공동육아 법인총회
- 4월2일(토)또는 9(토): 공동육아 방과후 신입이사진+대표교사 워크숍(* 날짜미정)
- 5월20일(금)~21(토): 공동육아 방과후교사 봄 학술대회(*마리스타 수녀원)
- 5월27일(금):여름들살이답사
- 6월13일(월)~24(금):단오잔치 주간
- 7월20일(수) :교사회 상반기평가/하반기계획 종일회의
- 7월28일(목)~29(금): 공동육아 여름교사대회
- 8월1일(월)~5(금): 터전여름방학
- 8월15일(월)~16(화):자전거여행(4~6학년)
- 8월17(수)~19(금): 여름들살이(*인천 무의도)
- 9월10일(토): 마을 한가위잔치
- 10월8일(토): 공동육아 한마당
- 10월15일(토): 터전설명회
- 10월28일(금)~29(토): 공동육아 방과후교사 가을학술대회
- 11월25일(금) :겨울들살이 답사
- 12월16(금): 해보내기행사

<2017년>

- 1월2일(월)~6(금): 터전겨울방학
 - 1월11(수)~13(금): 겨울들살이(연천 선사유적지)
 - 1월19일(목): 교사회 종일평가회의
 - 1월20(금)~21(토): 겨울교사대회
 - 2월17일(금) : 터전졸업/수료식
 - 2월22일(수)~28(화): 신입 터전적응기간 (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2016년 11월 활동계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2017년도신입 면담주간 11/3목~5.토		어린이전체 회의/노래마당 (노을, 아침새 소리, 축복송 몸짓 만들기) *파랑비번	선택활동	자기성장활동3	스스로 날 (선택활동) 숲속연차7	
6	7. 입동	8	9	10	11	12
봉제산 방과후 '구름' 현장연수주간 11/7.월 ~11/11.금	제기 만들기 *전체놀이	나들이 *파랑비번	선택활동	자기성장활동4 *1,2학년 방모임	간식동아리 (오므라이스) *3,4학년방모임 *대표교사회의 (10시~사무국)	
13	14	15	16	17	18	19
•하제누리 '태평양/ 울동 방과후 '햇빛' 현장연수 주간 11/14.월 ~18.금 •정기상담주간	스스로간식 *전체놀이	칠보산행	선택활동	자기성장활동5	스스로 날 (선택활동) *파랑비번	
20	21	22. 소설	23	24	25	26
•정기상담주간	놀이마당연습 *전체놀이 *파랑연차5	나들이 *파랑비번	선택활동	자기성장활동6	겨울들살이답사 터전운영아마 :단미,홍시,당근	*터전 김장
27	28	29	30	12/1	12/2	12/3
	놀이마당연습 *전체놀이 *소리현장연수 (인천하제누리 방과후)	나들이/ 생태교육 *소리현장연수 (인천하제누리 방과후)	놀이마당 '제기차기' *소리현장연수 (인천하제누리 방과후)	자기성장활동7	스스로 날 (선택활동) **파랑비번	

-11/14(월)~24(목)은 정기상담기간입니다. 정기상담은 방담임(또는 교사회)과 부모가 아이들 생활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상담가능시간은 **오전 10시~11시, 오후 18시30분 이후**입니다. 시간약속 미리 미리 부탁드립니다.

-11월은 신입교사현장연수 기간입니다. 다른 터전(인천 하제누리방과후, 분당 울동방과후, 화곡동 봉제산방과후) 신입교사 세 명이 우리터전을 방문예정이며 소리는 11/28(월)~11/30(수)까지 인천 하제누리 방과후에서 현장연수 예정입니다.

-11/25(금)에 교사회는 겨울들살이 답사예정입니다. 장소는 연천선사유적지이며, 이날 하루 터전운영을 맡아주시는 단미, 홍시, 당근께 고마움 전합니다.

-11월 놀이마당은 '제기차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제기차기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늘 바깥놀이하기 편한 옷차림과 신발을 신도록 살펴주세요. 특히 월요일에는 전체놀이, 화요일에는 나들이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5. 연 수 일 지

11월 7일 월요일	등원 11시 00분 하원 07시 00분	연수생	박예은(구름)	지도 교사	이정환(파랑)
시 간	하루흐름 관찰내용				
11:00-12:30 아침회의	- 방과후 소개 - 일주일 일정 나눔				
12:30-13:00	- 점심식사				
13:00-15:30	- 숙제 및 자유놀이, 바깥놀이 - 교사 소리와 바깥놀이를 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감. -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하는 소꿉놀이를 지켜보다가 고학년 여자아이들이 와서 인사하고 같이 놀이를 하자고 함. - 남자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버려진 음식물을 발견해서 던지고 놀다가 다툼이 생김.				
15:30-16:30	- '억울한 종' - 간식: 탕수육 - 청소 -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억울한 종'을 쳐서 다 같이 모여 앓음. 교사의 진행으로 종을 친 아이가 왜 속상한지 상황과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상대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 교사가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고 묻고, 몇몇 아이들이 덧붙여 설명해주니 잘못을 한 아이도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함. - 종을 친 아이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사과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함. 다른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 상대편 아이가 사과를 하며 마무리되었음.				
16:00-16:20 전체 모임	- 이야기 듣기 - 현장연수 교사 소개 - 단체놀이 정하기 - 오후 활동 설명 - 교사가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며 귀 기울여 들었음. - 현장연수를 와서 일주일동안 함께 하게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아이들의 질문을 받음. 남자친구, 좋아하는 색깔, 봉제산방과후의 지역, 봉제산 아이들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을 받음.				
16:20-18:00	- 놀이마당: 제기 만들기 - 11월 놀이마당이 제기차기인데, 완성된 장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 보임. - 교사가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기를 하는데 칼을 쓰다가 다치는 아이들이 있었음. 칼을 쓰는 것이 미숙한 저학년 아이들은 장갑을 끼게 하거나 가위를 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연수생활동	- 바깥놀이, 놀이마당 제기 만들기 도움 및 참여				
연수생의견	- 억울한 종을 치고, 아이들이 다 모여 앓아 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인상 깊었음.				
지도교사 조언	첫날 터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이들 곁에서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좋아보였어요.				

11월 8일 화요일	등원 11시 00분	연수생	박예은(구름)	지도 교사	이정환(파랑)
	하원 07시 00분				
시 간	하루흐름 관찰내용				
11:00-12:00 아침회의	- 나들이 장소 안내 - 하루 일정 나눔				
12:00-14:00	- 터전 주변 소개 - 점심식사		- 마을 반찬가게(꽃밥상-터전 간식 주2회), 텃밭, 학교, 놀이 장소 소개		
14:00-15:30	- 숙제 및 자유놀이				
15:30-16:00	- 간식: 떡, 울무차 - 청소		- 저학년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는데 여자아이들은 떡이 싫다고 덜어달라고 하고 남자아이들은 욕심을 내며 더 먹겠다고 함.		
16:00-16:20 전체 모임	- 이야기 듣기 - 나들이 안내		-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아이 들이 관심을 보임.		
16:20-18:00	- 나들이: 가까운 무덤 - 모둠별 미션 - 놀이: 얼음땡, 강통 차기, 숨바꼭질,		- 나들이 장소에 가는 동안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즐겁게 감. - 모둠별 미션을 주어 이번 달 놀이를 연습 하도록 함. 고학년들이 제기차기가 서툰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연습을 도와주 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 미션을 통과한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함. 저학년은 숨바꼭질, 나머지 아이들은 강통 차기를 함께 했는데 모두들 추위도 잊고 열심히 놀았음.		
연수생 활동	- 숙제, 청소 검사 - 나들이				
연수생 의견	- 나들이를 가는 길에 다 같이 줄을 서서 가지 않고 교사가 만날 장소를 짧게 끊어서 알려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무리지어서 감. 놀이도 하면서 가니까 먼 길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고 놀이와 나들이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 좋았음. - 중간에 4학년 여자아이가 친구들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숨으 려다가 빠르게 인사를 하고 지나감. 왜 부끄럽다고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				
지도교사 조언	추운 날인데 참 고생이 많았어요. 아이들 속 선생님 표정이 참 즐거워보였다고 들었어요.				

11월 9일 수요일	등원 11시 00분	연수생	박예은(구름)	지도 교사	이정환(파랑)
	하원 07시 00분				
시 간	하루흐름 관찰내용				
11:00-12:00 아침회의	- 교사 교육: 운영지침서(30-40p) - 하루 일정 나눔				
12:00-13:00	- 점심식사 - 활동 준비				
13:00-15:00	- 숙제 - 놀이: 바깥놀이, 공기, 종이접기, 책읽기, 종이로봇		- 등원 후 먼저 놀이를 하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으나 숙제부터 하자고 말하니 바로 숙제를 꺼내서 시작함.		
15:00-15:50	- 생일잔치: 아마 편지 읽기, 축복송, 단체사진 - 간식: 케이크, 방울토마토, 감		- 엄마의 편지를 듣고 씩스러워 했지만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귀여움. -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면서도 생일인 아이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아 보임.		
15:50-16:00	- 청소		- 모두들 자기 맡은 부분을 빨리 끝냈음.		
16:00-16:15 전체 모임	- 이야기 듣기 - 활동 안내		- 전체 모임 할 때 자리 때문에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서 매번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교사가 섞어서 앉자고 말하면 스스로 자리를 옮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몇몇은 고집을 부리거나 옮겨 앉은 후에도 옆에 앉은 아들에게 짜증을 냄.		
16:20-17:00 선택활동	- 목공: 나무 공 만들기/ 목공방, 파랑 - 기타: A, E코드/ 1,2학년 방, 숲속 - 생태나들이: 나뭇잎 물감 찍기/ 3-4학년 방, 교사 소리		- 나무가 단단해서 쉽지 않았는데 차분히 톱질을 하는 아이들은 모양이 잘 잡혔고, 저학년 아이들은 좋은 톱을 서로 먼저 쓰려고 다투거나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함. - 30분 정도 집중하다가 한 아이가 칼을 갈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관심이 갈가는 것으로 옮겨감.		
17:00-18:00	- 전체 놀이) 진놀이; 상촌초등학교		- 추운데도 모두 놀이에 몰입하여 열심히 참여함.		
연수생 활동	- 선택활동 시간에 목공에 들어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찰함.				
연수생 의견	- 활동과 전체놀이에 교사도 함께 들어가 같이 몰입하며 활동하는 것이 좋아 보임. - 전체가 모임 때마다 자리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자리를 정해주거나 아예 자울로 두지 않고, 다 앉은 후에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지도교사 조언	목공시간 담당교사가 놓친 부분을 잘 기록해 주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역시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전체모임시간 교사가 자리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옆자리에 동성아이들, 특히 친한 동무들끼리 앉을 경우 유독 더 집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부터예요. 앉고 난 뒤 다시 정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한 것 이구요. 아직도 교사나 아이들 모두 노력중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등원 11시 00분	연수생	박예은(구름)	지도 교사	이정환(파랑)
	하원 09시 00분				
시 간	하루흐름 관찰내용				
11:00-13:00 긴회의	- 방모임 논의, 한 달 흐름 점검 - 들살이 장소 논의 - 하루 일정 나눔		- 거친 말과 행동을 보이는 아이에 대한 고민. - 방모임에서 아이들 문제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 전체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방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 상담에서 해당 아마들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심.		
13:00-14:00	- 점심식사				
14:00-15:00	- 숙제 및 자유놀이, 바깥놀이				
15:00-15:50	- 간식: 잡채 - 청소		- 간식으로 나온 잡채에 야채가 많았고 특히 부추가 매워서 아이들이 힘들어 함. - 거실 쓸기를 하는 아이들이 청소를 대충 했다가 닦기를 하는 아이들이 먼지가 많다고 해서 다시 쓸기를 함. - 거실 청소가 늦어지니 청소를 일찍 끝낸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방향하였음.		
15:50-16:00 전체 모임	- 이야기 듣기 - 활동 안내				
16:00-18:00 자기성장 활동	- 1,2학년: 젖은 그림(습식수채화)/ 교사 숲속 - 3학년: 신화 이야기, 리코더/ 교사 파랑 - 4학년: 그림책 세미나/ 교사 소리		- 지난 시간 그림을 보고 어떻게 보이는지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린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설명해줌. 같은 그림을 보고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져 신기했음. - 빨강이 이야기를 듣고,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림을 그림. 모두들 몰입하여 열심히 자기 그림을 그렸음.		
연수생 활동	- 숙제 검사 - 자기성장활동 시간에 1,2학년과 함께 젖은 그림을 그림. - 1,2학년 방모임 참관				
연수생 의견	- 방모임에서 아마들이 직접 아이들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좋아 보임. 교사가 방모임에서 아이들의 어려운 이야기(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문제행동 등)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나 활동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숲속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시며 아이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체에게 공개하는 것을 조심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주심.				
지도교사 조언	방모임은 아직도 많은 고민이 남는 부분입니다. 공동육아가 자랑하는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것' 이 잘 되려면 성숙한 부모들이라는 전제가 필요조건이거든요. 아이들의 어두운 부분을 날것으로 드러내 이야기를 이끈다는 것은 (교사의 개인적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교사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늘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 채우는 것도 경계해야 되구요.				

11월 11일 금요일	등원 11시 00분	연수생	박예은(구름)	지도 교사	이정환(파랑)
	하원 07시 00분				
시 간	하루흐름 관찰내용				
11:00-12:00 아침회의	- 1,2학년 방모임 피드백 - 일정 나눔	- 지난 방모임에 대한 이야기. - 1,2학년 방모임 때 교육소위에서 함께 보기로 정한 영상을 봤는데 영상의 내용이 교사에게 미리 공유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고, 3,4학년 방모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 함.			
12:00-13:00	- 점심식사				
13:00-15:30	- 숙제 및 자유놀이, 바깥놀이 - 간식동아리	- 자유등원일인데도 간식동아리를 하기 위해 오는 아이들이 있었음. -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간식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자유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냄.			
15:30-16:00	- 간식: 오므라이스	- 간식동아리에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볶음밥과 지단을 부쳐서 간식을 만들음. -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어 만든 아이들이 뿌듯해함.			
16:00-16:20	- 연수생 인사, 기념사진	- 일주일간 생활하며 어땠는지 이야기 나눔 후에 아이들이 축복송을 불러주고 함께 단체사진을 찍음.			
16:20-18:00 자유선택활동	- 자유놀이 - 선택활동	- 수요일에 다 끝내지 못한 활동을 마저하거나 연습을 함. - 자유놀이를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냄.			
연수생 활동	- 숙제지도 - 선택활동(목공)				
연수생 의견	- 자유등원일이라 터전이 허전한 느낌이 있었음. -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시간을 잘 보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심심해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임. - 일주일간의 생활이었지만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인사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고마웠고, 아이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잘 배웅해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좋아 보임.				
지도교사 조언	<p>교사회는 금요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같은 모습은 4학년자율등원과 스스로 날 도입이후 생긴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사의 욕심이겠지요. 어쩌면 이 독특한 요일 안에 큰 힌트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p> <p>*사람의 향기는 아이들이 먼저 알아본다지요. 구름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진지함과 섬세함까지 겸비하였으니 더할 나위없네요. 한주동안 고생 많았습니다.</p>				

6. 총평

<*'보육실습 지도교사 평가양식'중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네 가지 항목을 추려서 적어보았습니다.>

1.근무사항(출근, 퇴근, 조퇴)

교사의 근무태만은 자신뿐 아니라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간동안 구름선생님이 보여준 성실한 모습은 교사회 전체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2.태도(적극성, 책임감, 존중)

공동육아 방과후 현장 특성상 교사의 자발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기존에 마련된 활동에 머무는 것을 넘어 활동을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새로운 활동에 대한 호기심은 교사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합니다. 젓은 그림이나 목공 같은 아이들과 지내는 활동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방모임까지 함께 참석하며 애쓰는 모습은 참 좋아보였습니다. 신입교사들은 타 현장에 가면 자칫 활동영역에 치우쳐 터전운영과 생활전반에 걸친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에서 구름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3.아동- 관찰, 상호작용, 아동관

아이들을 향해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 그 말 속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꽃이라면 교사는 햇볕과 같은 존재'라 했지요. 구름선생님에게는 그 비유가 딱 들어 맞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하든 아이들을 먼저 떠올리는 선생님의 고운 마음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낯선 아이들에게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이좋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편안하게 따랐던 까닭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 몸짓, 이야기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연수일지를 읽으면 그림을 보듯 읽히나 봅니다.

4.동료교사- 관계형성

어떤 교사는 아이들에게는 귀를 잘 기울이지만 동료교사에게는 닫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름은 늘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름선생님은 의문이 들 때는 여러 번 생각한 다음에 묻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교사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합니다.

방과후 교사생활의 큰 어려움중 하나가 동료교사와 마음을 잘 맞추어 가는 것인데, 이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